

시에 감동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내놓을 수 있다

글 변학수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학치료학과 교수

수용적 문학치료(receptive biblio·poetry therapy)는 독서치료란 이름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책을 읽으면 치료의 효과가 있더라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말은 과학적 시대에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그간 독서치료라는 이름의 책도 많이 출간됐다. 물론 시 치료나 이야기 치료라는 이름으로 또는 간혹 비블리오테라피라는 이름으로, 내러티브 테라피란 이름으로 독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경우도 있고, 저널 테라피라는 이름이나 독서클리닉이란 이름이 붙은 경우도 있고, ‘책으로 마음의 병 고쳐요’ 등과 같은 제목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모두가 수용적 문학치료의 일환이다. 좀더 확장해 나가면 드라마치료 연극치료, 영화치료, 시네 테라피 등이 보이는데 이것 또한 문학적 수용을 확장해 몸동작과 관련된 영역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비블리오테라피는 전적으로 책이 어떤 상황에서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쓴 책을 말한다. 우울할 때, 위로받고 싶을 때, 그리고 아이가 문제점을 보일 때, 분노할 때 어떻게 그 인생의 위기를 제어하거나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쓴 글이다. 독서치료라는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체로 서사의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그것에 독서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를 논의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독서지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치료라는 의미, 즉 테라피가 독서치료에 빠져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시 치료라는 것은 대상이 시적이고 정서적인 분위기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사실은 독서와 같은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글쓰기의 자세로 돌아 치유의 길을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이야기 치료는 시 치료가 상징화(symbolization)의 길, 즉 상징적 언어의 길을 택하고 있는 반대의 길이고, 탈 상징화(de-symbolization)의 길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문답다(물론 부분적으로 이야기 속에도 상징이 속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과정으로 볼 때 그렇다는 뜻이다). 내러티브 테라피라는 말도 결국 이야기 치료에 속한다. 아니, 이야기치료가 내러티브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런 테라피라는 이름의 왕국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독서나 글쓰기 과정에 실행되는 테라피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독서의 행위(act)나 독서심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 독서에서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 독서하는 사람을 살펴보자. 그의 눈은 고정되어 있고 빛이 난다. 그것은 아마 독서하는 사람이 내면의 눈으로 어떤 것을 상상하거나 무엇을 기억하는 순간에만 찾을 수 있는 눈일 것이다. 이런 반추하는 행위야말로 인간이 가진 독특한 특질이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것을 반복할 수 있고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고 독서의 장면 속에서 나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고 유비추리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나간 것들이 반복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된다.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없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는 고착이라고 한다.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을 떠올린다. 유사한 상황을 떠올리고 가능한 것을 떠올린



● 이 글을 쓴 변학수는 1958년에 태어났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졸업하고, 독일 아데나워재단 장학생, 슈투트가르트 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철학석사(M.A.)와 문학박사(Dr.phil.)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학치료학과 교수, 독일 공인 문학치료사, 독일 프리츠 페를스 연구소(Fritz-Perls-Institut)에서 임상수련(문학치료 슈퍼바이저), 독일문학치료학회 회원, 문학평론가이다. 2003년 국내 최초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학치료학과 설립했다. 저서로 《통합적 문학치료》(문학치료) 《프로이트 프리즘》 《잘못보기》(문화로 읽는 영화의 즐거움) 《낯선 문학의 해석학적 미학적 경험》 《앉아서 오줌 누는 남자》(인문학과 해석학)(공저), 《영화로 문화읽기》(공저) 등이 있다. 《시와 인식》 《기억의 공간》(공역) 《보리스를 위한 파티》(독일문학은 없다, 릴케-헨시·시즈노트(공역) 등을 번역했다.

다. 특정한 상징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정서가 환기된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
을 까맣게 몰랐다.

-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속으로 조용히 우는 갈대’에서 우리는 어떤 정서를 가지는가. 말 못하고 조용히 운 사연이나 지금 여기서 그렇게 살고 있는 현상이 환기되지 않는가. 나아가 자기를 흔드는 것이 바람도 달빛도 아닌 자신의 울음이라는 -그것이 사랑이든, 일에 대한 결정이든- 통찰이 생기지 않는가? 이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 하나는 자신에 대한 통찰과 자신의 정서를 체험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도 -여기서는 시인 또는 갈대라는 대상이 지칭하는 삼라만상도- 자신처럼 똑같이 울고 있으므로 자신만 소외되어 있거나 외롭지는 않다는 위로다. 이런 시는 충분히 자신의 모습을 상징으로 보여준다. 만약 독자 여러분들이 이 시에 탈 상징화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싶다면 같은 형식을 다르게 써보는 것도 괜찮다.

언제부턴가 나 ()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이었을 것이다. 나의 온몸이 ()하고(이고) 있는 것을 알았다. ()도 ()도 아닌 것. 나 ()는 나를 흔드는 것이 ()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 산다는 것은 ()이란 것을 나는 몰랐다.

물론 이런 틀에 매이지 않고 직접 자유롭게 쓰는 방식이 더 좋다. 시에 감동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힘들지 않고 내놓을 수 있다. 시가 환기하는 것, 계시와 아우라를 통해 환기하는 것을 산문으로 써내려갈 수 있으면 더욱 좋다. 물론 문학치료의 실제에서는 특별한 형식, 이를 테면 시조, 하이쿠, 체베나, 4행시, 난센스시 등으로 써보기도 한다. 어떤 시든 맘에 드는 시를 골라 그렇게 해보면 우리의 감성은 충분히 부드러워지고 수용적이 된다. 시집이나 시를 고르기가 힘들면 문정희, 신달자, 정호승, 류시화, 최승호, 이성복, 황지우 같은 시인들의 시를 먼저 펴보라. 그리고 맘에 들지 않으면 건너뛰라. 맘에 드는 것만 골라 감정이입해보라. 그러면 차츰 정서가 수용적이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시도 읽어볼 마음이 생긴다. **☞**